



2000년 에너지 수요전망

- 에너지경제연구원 -

1. 국내 에너지 소비 동향

1. 총에너지 소비 동향

□ 1999년도 1차에너지 소비는 1998년도의 165.9백만TOE에서 9.1% 증가한 181.0백만TOE를 기록

〈표 1-1〉 1차에너지 소비 동향

분 기	1997	1998	1999				연간p
			1/4	2/4	3/4	4/4p	
석탄 (천톤)	53,942 (7.3)	55,892 (3.6)	14,234 (2.0)	14,576 (2.5)	14,738 (9.4)	15,497 (8.7)	59,045 (5.6)
석유 (천BBL)	793,899 (10.1)	670,278 (-15.6)	195,147 (11.5)	161,354 (3.6)	170,255 (9.7)	193,551 (5.0)	720,307 (7.5)
LNG (천톤)	11,379 (20.8)	10,645 (-6.4)	4,235 (27.1)	2,200 (22.8)	2,524 (15.8)	3,750 (12.2)	12,709 (19.4)
수력 (GWh)	5,404 (3.8)	6,099 (12.9)	1,134 (-7.4)	1,589 (-13.9)	1,909 (-3.4)	1,434 (36.1)	6,066 (-0.5)
원자력 (GWh)	77,086 (4.3)	89,689 (16.3)	23,174 (16.3)	24,478 (14.6)	27,054 (13.7)	28,358 (15.2)	103,064 (14.9)
기타 (천TOE)	1,344 (15.8)	1,526 (13.5)	383 (9.4)	417 (9.4)	399 (9.4)	507 (17.6)	1,705 (11.7)
1차에너지 (천TOE)	180,638 (9.3)	165,932 (-8.1)	47,500 (11.4)	41,099 (5.9)	43,339 (10.4)	49,090 (8.6)	181,027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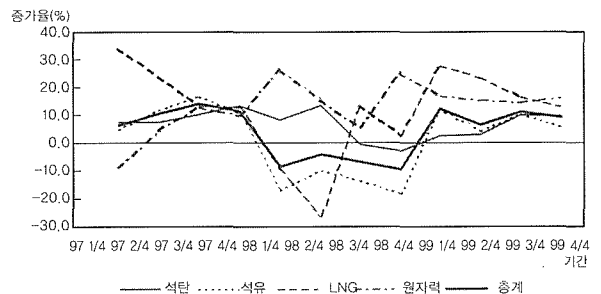
주)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 1999년 총에너지 소비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수준을 완전히 회복
- 석유는 국제 유가 상승, 온난한 기온 등의 영향으

로 4/4분기 가정 상업부문과 휘발유 수요가 위축된 반면, 그 외 수송용 수요와 산업 수요의 증가가 가속화됨. 연간 7.5% 증가한 720백만bbl을 기록

- 도시가스 수요의 호조에 따른 도시가스용 소비 증가의 영향으로 LNG소비는 전년대비 19.4% 증가한 12.7백만톤을 기록, 역시 4/4 분기에는 다소 둔화
- 석탄은 철강·시멘트의 생산 증대가 부진하나 발전용 소비 호조 등으로 하반기에 수요가 증가하였고, 연간 5.6% 증가한 59백만톤을 기록
- 분기별로는 1999년 1/4분기에 전년동기의 급감에 대한 반등으로 큰 증가를 기록하였고, 2/4분기에 둔화되었다가 3/4분기에 크게 증가. 4/4분기에 다시 증가율이 둔화된 것은 고유가, 온난한 기온 등의 요인으로 석유와 LNG 수요 증가가 상대적으로 정체된 것에 기인

[그림 1-1] 1차 에너지 소비증가율 추이



- 외환위기로 1998년에 9.4% 감소하였던 최종에너지 소비는 1999년 들어 경제여건의 개선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한 143백만TOE(잠정)를 기록

〈표 1-2〉 최종에너지 소비 동향

	1997	1998	1999				
			1/4	2/4	3/4	4/4p	연간p
산업	77,908	76,039	196,649	19,049	19,999	21,329	80,025
(천TOE)	(14.8)	(-2.4)	(4.9)	(2.7)	(6.9)	(6.4)	(5.2)
수송	32,079	26,184	6,478	6,816	7,536	7,356	28,187
(천TOE)	(7.7)	(-18.4)	(4.9)	(4.0)	(11.5)	(10.0)	(7.6)
가정·상업·공공(천TOE)	35,786	29,905	12,707	6,440	5,776	10,216	35,139
(천TOE)	(4.1)	(-16.4)	(29.4)	(12.8)	(14.8)	(8.8)	(17.5)
합계	145,773	132,128	38,834	32,306	33,311	38,901	143,351
(천TOE)	(10.4)	(-9.4)	(11.8)	(4.8)	(9.2)	(7.7)	(8.5)
석유	727,767	642,761	187,573	152,427	164,699	180,909	691,608
(천bbl)	(12.9)	(-11.7)	(14.2)	(2.1)	(9.2)	(4.8)	(7.6)
무연탄	1,925	2,180	633	431	464	842	2,370
(천톤)	(-32.6)	(13.2)	(8.0)	(17.8)	(4.3)	(7.5)	(8.7)
유연탄	26,997	25,579	6,166	6,592	6,543	6,530	25,831
(천톤)	(4.0)	(-5.3)	(-3.1)	(1.2)	(3.2)	(2.7)	(1.0)
전력	200.8	193.5	49.7	51.9	56.5	56.0	214.1
(TWh)	(10.0)	(-3.6)	(6.2)	(10.1)	(13.0)	(13.2)	(10.7)
도시가스	7,708	8,024	3,832	1,998	1,190	3,013	10,033
(백만m³)	(16.7)	(4.7)	(21.1)	(28.5)	(22.7)	(29.0)	(25.0)
열 및 기타	2,253	2,387	830	555	451	867	2,702
(천TOE)	(14.3)	(5.9)	(12.2)	(12.1)	(9.8)	(16.9)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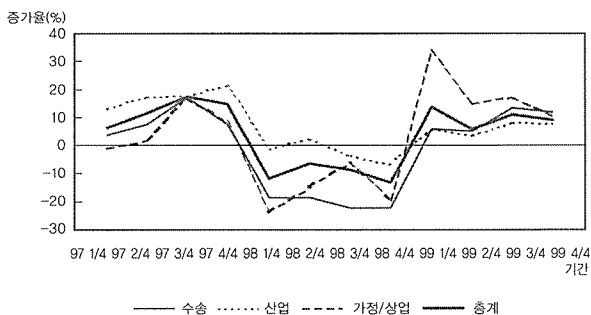
주)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 원별로 볼 때 1998년에 가장 심한 타격을 받아 1999년 전년 대비 11.7% 감소하였던 석유소비가 크게 회복되어 1999년에는 7.6% 증가
- 전력소비는 1998년에 사상 처음으로 감소(-3.6%)한 데서 완전히 회복하여 증가세로 돌아선 후 분기별로 소비 증가가 빨라져서 1999년에는 전년동기 대비 10.7%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도시가스는 남부권의 주배관망 건설에 따른 신규 수요에 힘입어 25.0%의 증가율을 보이며 1999년에는 10,033백만m³를 기록

□ 1999년의 최종에너지 소비 동향을 살펴보면,

- 소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소비량에서 1997년 동기간 수준을 98.3% 회복, 1998년 소비가 외환위기 여파로 크게 감소했으므로 증가율의 수치상 의미는 크지 않으나, 소비 동향이 확연히 반전된 것으로 보임
- 분기별로는, 98년에 소비가 급감했던 1/4분기의 경우 지표상 반등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후, 난방 연료 등의 비수기인 2/4분기에 둔화되었다가 휴가 및 냉방철을 낀 3/4분기에 다시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4/4분기에는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1-2] 최종에너지 소비증가율 추이



- 특히 2/4분기의 둔화는 석유화학 처리시설 보수 등으로 나프타 및 등유가 일시적 감소를 기록한 것과 관련이 있으며, 전력과 도시가스는 소비 증가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 부문별로 살펴보면, 산업부문 소비가 3/4분기 들어 크게 증가하였으며 수송부문도 점차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이는 경기 회복과 함께 산업 활동이 점차 활발해지는 한편, 3/4분기 중 수송 및 물동량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2. 석유제품 소비 동향

□ 1999년 석유제품 소비는 전년대비 7.5% 증가하여

720백만 배럴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 상반기 7.8% 증가에 이어 3/4분기에 9.7%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4/4분기에는 5.0%로 다소 둔화

- 이로써 1999년 석유제품 소비는 3년 전인 1996년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1997년 수준에 비교하면 91%를 회복
- 총에너지 소비가 1997년 수준을 회복한 것에 비해, 석유소비의 회복이 느림. 이는 석유가 외환위기의 영향을 타에너지원에 비해 크게 받았으며, 1999년 국제유가의 강세 또한 수요 회복에 걸림돌이 된 때문임

□ 1999년의 분기별 수요 추이를 보면, 1/4분기와 3/4분기의 수요 강세와 2/4분기, 4/4분기의 상대적 약세로 구분됨

- 1/4분기의 급격한 수요증가는 가정상업부문이 주도하였으며, 이는 1998년 1/4분기에 가정상업부문 수요가 크게 감소하였던 것에 대한 반등임. 또한 경기 회복이 민간 내수 부문에서 시작된 것에 기인함

〈표 1-3〉 부문별 석유제품 소비 동향

(단위 : 천b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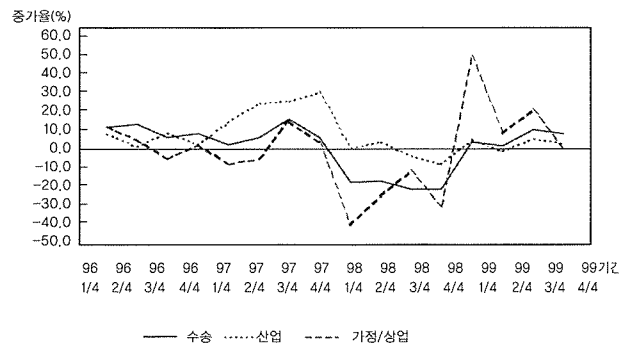
	1997	1998	1999				
			1/4	2/4	3/4	4/4p	연간p
수송	230,448 (8.5)	190,742 (-17.2)	46,804 (4.9)	49,268 (2.8)	54,674 (10.6)	53,103 (8.9)	203,849 (6.9)
산업	346,664 (23.1)	343,406 (-0.9)	90,313 (5.9)	82,288 (0.1)	89,329 (6.2)	95,741 (4.3)	357,671 (4.2)
- 연료	131,605 (2.1)	111,973 (-14.9)	31,933 (9.7)	27,481 (3.9)	28,259 (8.5)	32,322 (6.5)	117,913 (5.3)
- 원료	215,059 (40.9)	231,433 (7.6)	58,380 (4.0)	54,807 (-1.6)	61,070 (5.1)	63,419 (3.2)	237,676 (2.7)

가정·상업	150,364	108,248	50,456	20,871	20,697	38,065	130,088
· 공공	(0.0)	(-28.0)	(47.2)	(9.0)	(20.3)	(1.2)	(20.2)
발전	66,781	23,272	6,167	8,055	4,790	5,502	24,514
지역난방	(3.6)	(-65.2)	(-31.7)	(41.0)	(27.9)	(14.8)	(5.3)
도시가스	7,851	4,173	1,402	873	766	1,140	4,181
제조	(-33.3)	(-46.8)	(-12.5)	(12.2)	(30.3)	(-5.3)	(0.2)
석유계	793,899	670,278	195,147	161,354	170,256	193,551	720,307
	(10.1)	(-15.6)	(11.5)	(3.6)	(9.7)	(5.0)	(7.5)

주)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preliminary)

- 2/4분기는 석유 비수기로서, 산업활동의 회복이 본격화되기 전이며 납사처리설비 보수 등의 요인으로 증가세가 정체됨
- 3/4분기 들어 경기 회복이 민간에서 산업부문으로 확산되면서 산업부문(특히 연료)이 수송부문과 함께 석유수요 증가를 주도함
- 그러나, 3/4분기 말인 9월초와 10월초에 각각 큰 폭의 석유류 가격인상이 이루어져, 4/4분기 수요를 둔화시킴. 가정상업 부문 수요가 연초에 비해 크게 둔화되었으며, 수송 수요의 전반적인 강세 가운데도 휘발유 수요는 정체되었음

[그림 1-3] 부문별 석유제품 소비증가율 추이



□ 부문별로 수요 추이를 보면, 수송부문 수요 증가

가 가속화하고 있으며, 산업부문 수요도 하반기 이후 강세인 반면, 가정상업 부문 수요는 둔화되고 있음

- 수송부문 중에서도 차량 대수가 증가하고 있는 LPG(24.7%)와 경유(8.4%) 소비가 크게 증가하였고, 휘발유는 3/4분기까지 7%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다가 고유가 영향으로 4/4분기에는 감소, 연간 수송부문 석유수요는 6.9% 증가
- 산업 부문에서는 산업 경기 회복에 따라 중유 소비가 대폭 증가하다가 4/4분기에 정체된 반면, 연중 부진하던 등유와 경유 소비는 4/4분기에 증가. 한편, 설비 정기 보수로 둔화되었던 나프타 소비도 하반기 들어서 소폭 증가. 연간 산업 부문 연료수요는 5.3%, 원료수요는 2.7% 증가하였으며, 원료수요 증가의 둔화가 뚜렷이 나타남
- 가정상업 부문은 1/4분기의 대폭 반등 후, 비수기인 2/4~3/4분기에 증가율이 둔화되었다가, 4/4분기에는 정체되었으며, 등유와 경유의 수요는 4/4분기에 오히려 감소. 이는 하반기 고유가와 온난한 기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전환부문 석유소비는 증가율로는 늘어났으나, 1998년의 감소폭을 감안할 때 수치적 반등에 해당하며 1997년 수준에 비교하면 38%에 그침

□ 주요 유종별 소비 동향을 살펴보면, LPG와 수송용 경유 소비가 크게 증가하였고, 중유 소비 증가도 두드러진 반면, 나프타 소비는 다소 정체

- 등유와 경유(수송용 제외) 수요는 연간으로는 14.5%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이는 주로 1/4분기에 집중되어 있고, 4/4분기에는 1998년 동기 수준과 유사함

- 이미 지적인 대로 수송 부문에서 경유, LPG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휘발유 소비는 2/4분기와 4/4분기에 감소를 기록하였으나 연간으로는 안정적인 4.7%의 증가율을 기록
- LPG는 산업부문과 가정상업부문에서도 강한 소비 상승세를 기록. 이는 수송용을 제외한 LPG 소비가 전반적인 감소 추세에 있었던 것에 반하는 것으로 일단은 1998년의 감소에 대한 단기적 반등으로 추정됨
- 중유는 발전 부문 소비 회복과 함께 산업부문에서 크게 증가하여 연간 8.6% 증가
- 1998년에 높은 증가를 기록하였던 나프타 소비는 2/4분기 시설 정기 보수로 감소한 후 회복되었으나 하반기에 계속 정체되어 연간 2.8% 증가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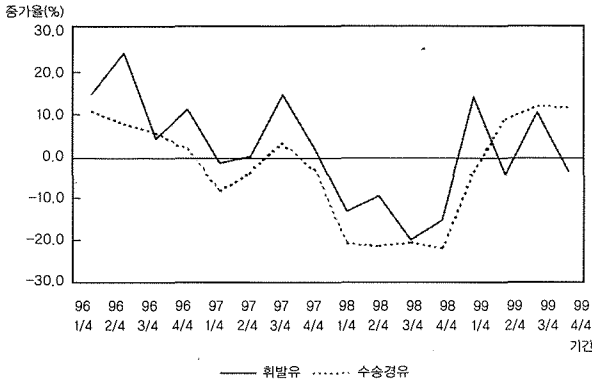
<표 1-4> 주요 석유제품의 소비 동향(1차에너지 기준)

(단위: 천bb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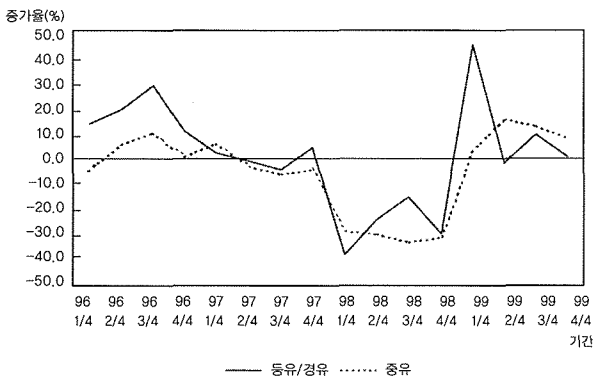
	1997	1998	1999				
			1/4	2/4	3/4	4/4p	연간p
휘발유	71,358 (5.0)	61,089 (-14.4)	15,763 (15.3)	15,214 (-3.7)	17,932 (11.6)	15,076 (-3.1)	63,985 (4.7)
수송경유	90,489 (-2.5)	71,581 (-20.9)	16,775 (-3.1)	19,296 (10.0)	20,496 (13.2)	21,032 (12.9)	77,599 (8.4)
등유+경유 (발전용포함)	160,928 (0.1)	109,828 (-31.8)	47,940 (45.3)	20,350 (-2.8)	20,562 (8.7)	36,872 (-0.3)	125,724 (14.5)
중유 (발전용포함)	164,740 (-3.0)	110,645 (-32.8)	32,156 (1.5)	30,306 (15.1)	27,080 (12.3)	30,634 (7.3)	120,176 (8.6)
나프타	194,918 (-7.1)	213,860 (9.7)	55,652 (4.9)	50,190 (-1.6)	56,389 (2.6)	57,632 (2.7)	219,863 (2.8)
LPG(도시 가스포함)	68,232 (-1.7)	65,057 (-4.7)	19,881 (12.2)	16,975 (16.0)	18,254 (22.4)	21,595 (21.4)	76,705 (17.9)

주) 등유+경유(수송용 제외), 실내등유, 보일러 등유의 소비량 합계.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preliminary)

[그림 1-4] 주요제품 소비증가율 추이(1)



[그림 1-5] 주요제품 소비증가율 추이(2)



II. 국내 경제 및 국제에너지 시장 동향

1. 국내경제동향 및 전망

가. 1999년 경제동향

□ 생산동향

- 99년 3/4분기의 산업생산은 작년 11월 이후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전년동기대비 26.7%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11월의 생산, 소비, 설비투

자 등 실물경제지표는 높은 수출증가와 설비투자 등 내수신장으로 안정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산업생산은 수출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는 컴퓨터, 자동차 등의 높은 수출증가와 내수의 증대로 10월에는 30.8%, 11월에는 26.8% 증가하였음
- 3/4분기에 이어 11월중 생산자 제품출하는 수출호조는 지속되고 있으나, 내수가 다소 둔화되고 전년동월대비 31.72% 증가
-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3/4분기 중 79.5%로 향상되었음. 10월에는 78.6%로 약간 둔화를 보였으나, 자동차의 생산증가 등으로 인하여 11월 중에는 80.3%로 증가
- 11월중 생산자 제품출하는 내수·수출이 큰 폭으로 신장된 사무회계용기계, 자동차와 수출호조를 보인 반도체, 기타운송장비 등이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31.2% 증가
- 11월중 생산자 제품재고는 자동차, 기타타전기계 등에서 전년동월 수준을 밑돌고 있으나, 반도체, 음향통신기기, 화학제품 등 일부업종이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감소폭은 4.8%로 축소
- 11월중 재고율지수는 재고수준이 낮아진 반면, 출하가 큰 폭으로 신장됨에 따라 68.6으로 낮아져 하향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표 II-1> 1999년 경제동향

(전년동기대비, %)

		98	99			
			상반기	3/4	10	11
국내총생산		-5.8	7.3	11.0	-	-
생산	생산	-7.3	17.6	26.8	30.8	26.8
	· 제조업	-7.5	18.1	27.6	31.5	27.7
	(중화학)	-4.8	22.1	31.9	34.8	31.0
	(경공업)	-16.0	4.7	12.0	18.7	13.7
	출하	-7.1	19.3	27.7	33.3	31.2
	· 내수	-23.0	14.6	26.3	28.2	24.8
	· 수출	28.5	25.9	29.4	39.5	39.0
	재고	-17.3	16.7	-9.8	-5.5	-4.8
	평균가동률	68.1	74.1	79.5	78.6	80.3

소비 물가	생산능력	4.7	6.0	5.8	7.7	8.6
	도·소매판매	-12.7	8.5	16.8	15.5	15.4
	내수용소비재출하	-21.4	15.0	23.8	26.2	23.1
	소비자물가(전년동월비)	7.5	-	-	1.2	1.4
	생산자물가(전년동월비)	12.2	-	-	-0.2	0.8
투자	설비					
	기계류수입액	-52.9	14.3	45.5	58.4	54.0
	설비투자추계	-38.7	25.8	53.5	50.5	66.2
	국내기계수주	-30.5	27.8	22.1	24.2	3.8
	건설					
건설기성액	-	1.6	3.7	0.8	-2.9	
국내건설수주	-42.5	-13.5	13.4	33.9	17.5	
건축허가면적	-55.0	-17.0	76.6	277.7	120.7	
경기	동행지수(전월비)				0.5	1.4
	· 순화변동치				94.3	95.2
	· 순환변동치전월차	-	-	-	0.1	0.9
	선행지수(전월비)				2.2	0.4
	· 전년동월비				21.0	19.7

주) 재고는 기말기준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1999.12. 재정경제부, 최근의 경제동향, 1999.12

□ 투자동향

- 설비투자는 자동차, 컴퓨터, 통신장비에 대한 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금속가공기계, 운반기계 등 산업용기계류도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66.2% 증가
-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는 운수·창고·통신업 등 비제조업과 공공부문의 발주부진으로 전년동월대비 3.8% 증가
- 건설수주는 공공기관의 발주는 감소하였으나, 민간부문의 주택 발주 호조로 17.5% 증가하였음

□ 소비동향

- 11월중 도소매판매는 자동차판매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도매업 및 소매업의 판매도 신장되어 15.4% 증가
- 11월중 내수용소비재출하는 휴대용전화기, 승용차 등 내구소비재의 높은 증가가 지속되고 비내구소비

재도 10%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하여 23.1% 증가

□ 경기종합지수

- 현재 경기국면을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의 순환변동치는 2월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경기상승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현재의 경기국면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10월중 둔화되었으나 11월 들어 전월보다 0.9p 증가하여 경기 상승 국면이 지속되고 있음
- 경기선행지수 전년 동월비는 98년 7월 이후 상승 추세가 지속되었으나, 11월의 전년동월비는 19.7% 증가하여 전월에 비해 1.3%p 낮아져 9월 이후 등락세를 나타내고 있음

□ 실업

- 취업자는 경기회복에 따라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5.9% 증가
- 실업자는 971천명, 실업률은 4.4%(계절조정 4.7%)로 하락세 지속
- 10월중 전산업 월평균 명목임금은 1,514천원으로 전년동월대비 9.4% 상승

□ 수출입동향

- 12월중 수출은 24.4% 증가한 154.5억달러로 월중 실적으로는 사상 최대규모 기록
- 수입은 수출 및 생산활동 증가, 설비투자 회복 등으로 자본재, 원자재, 소비재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45.6% 증가

□ 종합

- 최근 산업생산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소비, 투자

등 지표도 회복세로 전환됨으로써 경기순환의 저점을 통과한 후 경기회복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

- 금융·외환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물경제는 생산 투자, 소비 등의 개선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남
- 성장은 생산성위주의 설비투자 증가, 수출증가세에 의한 건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또한 경기회복세가 경공업 및 중소기업으로 확산되고 반도체, 자동차, 컴퓨터 등을 제외한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음
- 경기회복세가 아직까지 전업종 전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지는 않으며, 고실업상태의 개선도 아직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경제회복이 수출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 전분야에 확산되고 있는 과정이라 보여짐

나. 국내경제 전망

□ 경제성장

- 최근 한국은행의 2000년 경제전망에 따르면, 2000년 중에도 경기가 호조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GDP 성장률은 1998년 중의 경기침체에 따른 반사효과가 크게 작용했던 1999년보다 낮은 7.2%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수요항목별로는 소비 및 설비투자가 건실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는 데다 건설투자도 증가로 반전할 전망하고 있음

□ 소비 및 투자

- 2000년 중 민간소비는 소비 심리의 회복 및 경제여건의 안정화에 따라 7.5%의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
- 설비투자 또한 금리하락 등으로 15.5%의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

□ 수출입 및 경상수지

- 경상수지는 흑자를 지속할 것이나 흑자폭은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연간 흑자규모는 115억달러 내외로 예상
- 수출이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등을 중심으로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나 수입이 내수호조 지속,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수출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소비자물가

-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상승률이 1999년보다 높은 3.1% 수준에 이를 전망
-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임금의 오름세 지속 등 비용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경기호조 지속으로 수요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도 증대할 것으로 예상

〈표 II-2〉 주요 경제지표 전망

(전년동기대비, %)

	1998	1999					2000 ^{a)}	
		1/4	2/4	3/4 ^{b)}	4/4 ^{b)}	연간 ^{a)}	연간	
GDP성장률	-5.8	4.5	9.9	12.3	13.6	10.2	7.2	
민간소비	-9.6	6.2	9.1	10.3	9.6	8.8	7.5	
설비투자	-38.5	12.9	37.2	48.0	40.4	34.3	15.5	
건설투자	-10.2	-13.7	-8.5	-10.0	-5.9	-9.2	5.1	
상품수출	15.6	11.9	18.3	25.3	31.8	22.1	9.6	
상품수입	-24.6	26.4	30.8	40.0	40.8	34.7	16.7	
경상수지(억달러)	405.6	61.9	63.8	66.4	68.0	260	115	
상품수지(억달러)	416.3	67.8	80.1	71.9	80.7	301	162	
수출(통관)	-2.8	-6.1	2.6	15.3	23.0	8.7	10.1	
수입(통관)	-35.5	8.1	22.1	38.4	43.3	27.9	23.0	
소비자물가상승률 ^{b)}	7.5	0.7	0.6	0.7	1.4	0.8	3.1	
	4.0	0.5	(-0.5)	(0.9) ^{b)}	(1.0)	(1.9)	(4.3)	

주) 1) ()내는 전기말월대비 2) 실적치

자료) 한국은행, 한국은행의 2000년 경제전망 및 물가안정목표 설정안, 1999. 12. 27.

□ 주요 기관의 국내경제전망

- 참고로 최근 국내 주요기관의 경제전망 수정치는 <표 II-3>과 같음.

<표 II-3> 주요 기관의 2000년 경제전망

(단위 : %)

	KDI	정부	KIET	한국은행	한경연	삼성	현대	LG
성장률	7.8	6수준	6.5	7.2	6.7	6.5	5.9	7.4
소비자물가상승률	3.2	3이내	3.8	3.1	2.6	3.2	3.7	3.1
실업률	-	4수준	-	-	-	4.8	5.4	4.2
경상수지흑자(억불)	126	120내외	118	115	100.6	104	87	132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2000년 경제 전망, 1999. 12. 29
 재정경제부, 2000년 경제정책방향(안), 2000. 1. 29
 KDI, 분기별 경제전망(4/4), 1999. 12.
 KIET, 2000년 경제전망, 1999. 12. 28.
 LG경제연구소, 국내경제전망, 1999. 12. 30.
 현대경제연구소, 최근경기동향과 전망, 1999. 12. 17.
 한국은행, 한국은행의 2000년 경제전망 및 물가안정목표 설정안, 1999. 12. 27.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전망 2000, 1999, 12.

2. 국제석유시장 동향 및 전망

1) 가격동향

가. 12월 - 1월 가격동향

□ 1999년 12월 국제유가는 전월대비 배럴당 1달러 내외의 상승을 기록하는 지속적인 강세장이 유지되었음. 이는 4월 이후 9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산유국들의 감산 활동과 Y2K 문제에 대비한 비상 비축 수요의 증가, 계절적 요인에 의한 석유소비 증가 등 복합적 원인 때문임. 특히 이라크가 수출을 재개한 12월17일 이전까지 원유공급 감소로 인한 석

유 수급불균형의 우려감이 미국과 IEA의 석유재고통계 발표에 따라서 유가 등락이 심리적인 영향을 끼쳤음. 또한 연말 Y2K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비축수요도 유가 상승을 가져온 원인으로 지적되었음.

- 북미시장에서 WTI 현물가격이 배럴당 \$27에 근접하였으며, 두바이 원유도 12월 중순에 배럴당 24달러를 넘어섰음. 특히 이라크 원유의 수출 중단 이후 유럽지역의 원유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올라 북해산 브렌트 원유 현물가격은 배럴당 \$26에 근접하는 추세가 지속되었음. 유종별 원유의 12월 평균가격은 두바이 원유가 \$23.60/bbl, 브렌트 \$25.64/bbl, WTI \$26.06/bbl를 기록하였음

□ 2000년 1월 1일, 전세계는 그 동안의 우려와는 달리 Y2K 문제에 관한 특별한 사고없이 새천년을 맞이하였음. 우려하던 Y2K 문제가 해소되자 국제유가는 새해 첫주 동안 연말대비 배럴당 최고 \$1.50 정도 하락하는 약세로 출발되었음. 그러나 곧이어 산유국들이 3월 이후까지 감산기간을 연장할 것이라는 뉴스가 전해지자 유가는 배럴당 \$30까지 급상승하면서 반전되었음. 특히 북미지역에서의 가격 상승세가 두들어졌음

- 사우디의 감산기한 연장 지지가 알려진 1월10일 이후부터 유가가 급등하기 시작하여 1월21일 WTI 현물시세가 \$30/bbl를 기록한 이후 계속 \$27/bbl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였음. 1월31일 WTI 원유의 현물시세는 \$27.59/bbl로 1월4일 (\$25.52) 대비 배럴당 \$2.07 인상되었으며, 두바이 원유도 같은 기간동안 배럴당 \$1.58 올랐음. 그러나 두바이와 브렌트 원유의 1월 평균가격은 전월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 -4〉 최근 월 현물유가 추이

(단위 : \$/bbl)

	1999년 12월					2000년 1월				월평균	
	1주	2주	3주	4주	5주	1주	2주	3주	4주	12월	1월
두바이	23.24	23.67	23.99	23.63	23.46	21.96	23.03	24.05	24.18	23.60	23.30
브렌트	25.36	25.68	25.67	25.80	25.70	23.76	24.88	26.59	26.40	25.64	25.41
WTI	25.46	26.23	26.29	26.06	26.28	24.84	26.31	29.47	28.35	26.06	27.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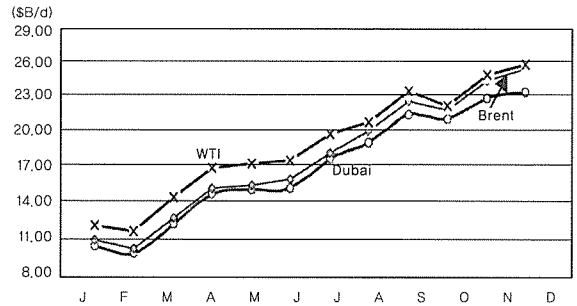
자료) 한국석유공사

2) 1999년 원유가 동향

□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1999년 국제원유가격은 세계 5대 산유국이 3월 중순 헤이그협약을 통하여 1년 동안의 감산에 합의한 시기를 전환점으로하여 연말까지 끊임없는 상승세를 유지하였다. 유종별 연평균 가격을 보면, 두바이 원유가 \$17.24/bbl로 전년 대비 약 41% 인상되었고, 브렌트 원유는 \$18.09/bbl로 약 37%, WTI 원유가 34%의 전년 대비 가격인상률을 기록함. 또한 연중으로는 12월 월평균 가격이 1월대비 모두 200%가 넘는 가격인상률을 기록하였는데, 유종별로는 두바이 원유가 219%, 브렌트 229%, WTI 209%임. 일별 현물가격은 11월 22일 WTI 원유가 \$27.97/bbl로 연중 최고가격을 기록하였고, 12월 30일에는 \$25.67/bbl로 마감

- 유종별로 월평균 가격의 스프레드를 보면, 12월 통계자료에서 두바이-브렌트는 \$2.04/bbl, 두바이-WTI \$2.36/bbl, 브렌트-WTI \$0.42/bbl인 것으로 나타남. 브렌트-WTI의 가격 스프레드가 두바이-브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타나났는데, 이는 상반기와는 다른 양상임. 즉 상반기에는 브렌트 원유의 가격이 두바이 원유와 근소한 가격차이를 보였던 반면에 하반기에는 브렌트 원유 가격이 WTI 원유가격에 근접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II -1] 1999년 월별 유종별 현물유가 추이



3) 원유가 변동의 주요 요인

□ 12월의 원유가 상승을 불러온 요인들은 다음과 같음

- 겨울철 성수기의 영향임. 일반적으로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를 석유소비의 계절적 성수기라고 분류하지만 그 중에서도 12월이 석유 수요가 가장 크게 늘어나는 시기임. 이는 서유럽과 동북아시아 북미 등 세계 주요 소비지역이 모두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임. 성수기에는 비수기와 비교하여 늘어나는 하루 석유소비량이 200만-500만배럴에 이름
- 12월 OPEC의 감산합의 이행률은 78%로 전월보다 낮아져 10개 감산참여 회원국의 원유 생산량은 총 2,390만b/d로 전월보다 12만b/d 증가. 그러나 이라크는 일시적인 수출중단으로 생산량이 전월대비 약 60% 수준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OPEC의 전체 산유량은 오히려 감소. 이라크는 결국 12월17일부터 원유수출을 재개하였음. 유엔 안보리는 포괄적인 대이라크 정책결의안을 통과시키고 7차 "Oil for Food" 프로그램을 승인함. 7차 계획은 180일간 총 52억6천만 달러 규모의 제한적 석유수출을 이라크에 허용함. 한편 OPEC 회원국들의 개별적인 감산연장에 대한 주장도 이어짐

- 컴퓨터의 2000년 인식오류 문제인 Y2K 때문에 발생하는 석유공급 차질에 대비하는 연말 비축수요도 12월의 일상적인 성수기 수요증가와 맞물리면서 12월 유가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 미국 에너지정보국(EIA)은 미국에서의 Y2k 대비 비축수요 물량이 약 1,700만 배럴인 것으로 추정

□ 1월의 유가 단기상승은 구조적 요인과 투기요인의 합작

- 사우디아라비아를 주축으로 산유국들의 감산기한 연장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 1월10일 이후 유가 단기급등을 불러온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음. 14일 개최된 OPEC 시장감시위원회에서 감산기한 연장건의문을 채택함으로써 OPEC이 3월총회에서 감산기한을 연장할 것이라는 사실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다만 언제까지 연장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OPEC의 감산연장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원유시장에 내재되어 있던 상승기조가 세계 석유수급불균형에 대한 구조적 요인과 선물시장에서의 투기요인이 맞물려 유가상승을 가속화 시킴
- 1월의 기후 변화도 원유가 등락에 큰 영향을 끼침. 1월 첫주 미국 북동부지역의 기후가 매우 따뜻하여 일부 Y2K 비축물량 출하와 함께 유가 약세를 지원하였음. 그러나 이후 계속되는 추운날씨와 한파 예보가 이어지면서 난방유 수급부족 우려 등으로 유가상승의 원인을 제공

4) 2000년 원유가격 전망(Dubai 기준)

- ◆ 시나리오 I(기준안) : 연평균 \$21.50/Bbl
 - '99년 대비 세계석유수요 2.4% 증가(IEA 전망)
 - OPEC 감산합의 시한 6개월 연장, 非OPEC 증산1.5%
- ◆ 시나리오 II(저유가) : 연평균 \$18.50/Bbl

- '99년 대비 세계석유수요 1.85% 증가
- OPEC 감산합의 1/4분기에 해제, 非OPEC 증산 2.0%

◆ 시나리오 III(고유가) : 연평균 \$24.50/Bbl

- '99년 대비 세계석유수요 3.0% 증가
- OPEC 감산합의 연말까지 유지, 非OPEC 증산 2.3%

〈표 II -5〉 시나리오별 가격전망

	구 분	1/4	2/4	3/4	4/4	연평균
시나리오 I (기준안)	OPEC, 하반기 산유량 조정	23.00	21.50	19.50	22.00	21.50
시나리오 II (저유가)	OPEC, 1/4분기 산유량 조정	20.00	17.50	17.00	19.50	18.50
시나리오 III (고유가)	OPEC, 연중 감산 유지	25.50	23.50	22.50	27.00	24.50

〈표 II -6〉 세계 석유수급 밸런스

(백만b/d)

	1999년					2000년				
	1/4	2/4	3/4	4/4	평균	1/4	2/4	3/4	4/4	평균
총수요	76.5	73.1	74.8	76.9	75.3	78.1	75.3	76.4	78.1	77.1
총공급	75.2	72.9	73.4	74.1	73.9	74.8	74.6	75.0	76.8	75.3
재고변동	-1.3	-0.2	-1.4	-2.8	-1.4	-3.3	-0.7	-1.4	-1.9	-1.8

주) 총수요 및 비OPEC 공급 데이터는 IEA 전망치 인용

III. 2000년 에너지 수요 전망

- 예측을 위한 입력전제인 거시경제지표는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치를 사용하였음
 - 현재 국내민간연구소나 국제기관들의 경제전망치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1999년 상반기의 경제전망치보다는 높게 수정치를 제시하고 있음

- 에너지 수요 예측을 위하여 세부적인 경기전망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한국은행 전망치(1999년 12월)를 채택하였음

〈표 III-1〉 2000년 경제전망

(전년동기대비, %)

	1998	1999					2000
		1/4	2/4	3/4	4/4	연간	
경제성장률	-5.8	4.5	9.9	12.3	13.6p	10.2p	7.2
소비자물가	7.5	0.7	0.6	0.7	1.4	0.8	3.1
생산자물가*	12.3	-3.5	-3.3	-1.9	0.5	-2.1	2.6

자료) 한국은행, 한국은행의 2000년 경제전망 및 물가안정목표 설정안, 1999. 12.

* KIET, 2000년 경제전망, 1999. 12.

□ 기온은 1981년 이후의 월 자료를 사용하여 지난 17년간 평균 기온 정보를 이용

〈표 III-2〉 평균기온 및 냉·난방도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기온	-2.9	-0.0	5.5	12.4	17.6	22.0	24.8	25.6	20.8	14.3	7.0	0.6
평균HDD	646.1	508.9	386.8	170.9	41.5	2.1	0.0	0.0	5.9	119.2	329.4	545.3
평균CDD	0.0	0.0	0.0	2.0	25.5	107.4	201.6	233.0	112.9	16.0	1.7	0.0

1. 1차에너지 수요 전망

□ 2000년 총에너지 수요는 7.6% 증가한 194.8백만 TOE에 이를 것으로 전망

〈표 III-3〉 1차에너지 수요 전망

	1999					2000	
	1/4	2/4	3/4	4/4p	연간p	1/4e	연간e
석탄 (천톤)	14,234 (2.0)	14,576 (2.5)	14,738 (9.4)	15,497 (8.7)	59,045 (5.6)	15,116 (6.2)	62,874 (6.5)

석유 (천BBL)	195,147 (11.5)	161,354 (3.6)	170,255 (9.7)	193,551 (5.0)	720,307 (7.5)	206,955 (6.1)	778,278 (8.0)
LNG (천톤)	4,235 (27.1)	2,200 (22.8)	2,524 (15.8)	3,750 (12.2)	12,709 (19.4)	4,584 (8.3)	14,151 (11.3)
수력 (GWh)	1,134 (-7.4)	1,589 (-13.9)	1,909 (-3.4)	1,434 (36.1)	6,066 (-0.5)	1,091 (-3.7)	5,555 (-8.4)
원자력 (GWh)	23,174 (16.3)	24,478 (14.6)	27,054 (13.7)	28,358 (15.2)	103,064 (14.9)	25,504 (10.1)	106,764 (3.6)
기타 (천TOE)	383 (9.4)	417 (9.4)	399 (9.4)	507 (17.6)	1,705 (11.7)	443 (15.6)	1,965 (15.3)
1차에너지 (천TOE)	47,500 (11.4)	41,099 (5.9)	43,339 (10.4)	49,090 (8.6)	181,027 (9.1)	50,903 (7.2)	194,844 (7.6)

주)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e는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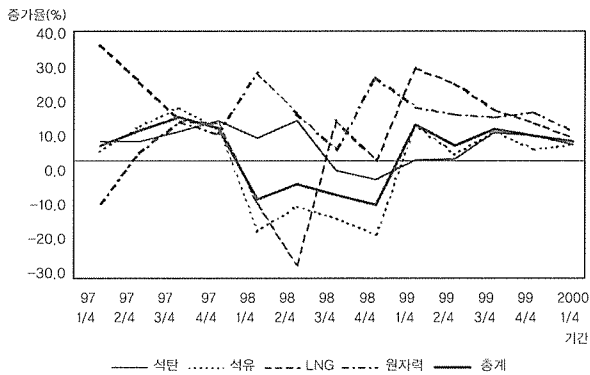
- 1999년 4/4분기 에너지수요는 석유를 중심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으나, 경기회복이 산업생산으로 확산되면서 2000년에도 연중 상승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2000년 1/4분기에는 7.2% 증가한 후 더욱 증가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 특히 1999년 에너지수요 회복은 높은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했던 것에 비해, 2000년에는 경제성장률 전제를 앞지르는 증가율이 전망되어 외환위기 이전 소비 행태로의 회귀가 예상됨
- 1999년 에너지수요가 1997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였으므로, 2000년에는 외환위기 이후 회복기를 넘어 본격적인 에너지 수요 증가 시기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 석유는 가속화되고 있는 수송 수요의 증가와 지속적인 산업생산 증대에 따른 산업 수요의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발전용 소비에서도 외환위기를 전후해 감소했던 부분이 크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어 석유 수요는 전년동기대비 8.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LNG는 1/4분기의 수요증가율은 비교적 낮으나, 연간으로는 여전히 높은 증가세가 이어져 11.3%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석탄은 안정적인 6.5%의 증가가 전망됨

□ 2000년 1/4분기에는 전년의 기술적 반등이 아닌 실질적인 경제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 또한 전년 동기대비 7.2%의 높은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1/4분기의 석유수요는 안정적이거나 높은 유가가 예상됨에 따라 연간 증가에는 못미치는 6.1%의 수요증가가 전망됨
- 석탄과 LNG 수요 또한 연간 증가율보다는 낮으나 안정적인 6.2%와 8.3%의 성장률을 각각 보일 것으로 기대됨

〈그림 Ⅲ-1〉 1차에너지 소비증가율 전망



2.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 2000년 1/4분기의 최종에너지 수요는 지난해에 이어 안정적인 증가추세가 지속되어 전년동기대비 6.4% 증가하여 연간 6.6%의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00년 1/4분기 전망을 부문별로 보면, 산업부문은 전년동기대비 5.7%, 수송부문은 10.0%, 그리

고 가정·상업·공공부문은 5.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가정상업부문에서 증가율이 둔화되는 것은 유가 인상과 난방철 평년기온 전제에 기인함. 또한 경제 회복이 산업투자로 확산되는 한편 민간 소비는 다소 둔화되는 것과도 연관지을 수 있음

- 2000년 연간으로는 1/4분기의 성장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가정 상업부문에서 5.8% 성장이 기대되며 수송부문과 산업부문도 10.0%와 5.7%의 증가가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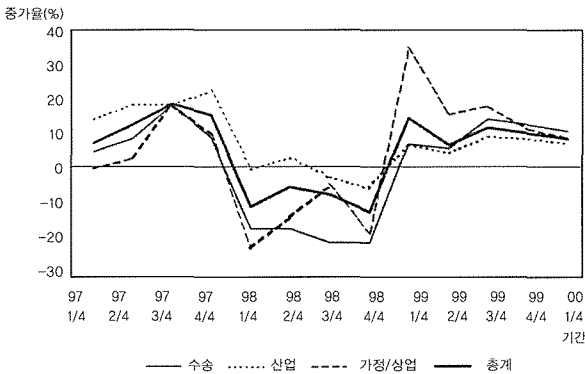
〈표 Ⅲ-4〉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1999					2000	
	1/4	2/4	3/4	4/4p	연간p	1/4e	연간e
산업	196,649	19,049	19,999	21,329	80,025	20,717	84,558
(천TOE)	(4.9)	(2.7)	(6.9)	(6.4)	(5.2)	(5.4)	(5.7)
수송	6,478	6,816	7,536	7,356	28,187	7,022	31,015
(천TOE)	(4.9)	(4.0)	(11.5)	(10.0)	(7.6)	(8.4)	(10.0)
가정·상업·공공	12,707	6,440	5,776	10,216	35,139	13,562	37,194
(천TOE)	(29.4)	(12.8)	(14.8)	(8.8)	(17.5)	(6.7)	(5.8)
합계	38,834	32,306	33,311	38,901	143,351	41,300	152,767
(천TOE)	(11.8)	(4.8)	(9.2)	(7.7)	(8.5)	(6.4)	(6.6)
석유	187,573	152,427	164,699	180,909	691,608	195,405	733,230
(천bbl)	(14.2)	(2.1)	(9.2)	(4.8)	(7.6)	(4.2)	(6.0)
무연탄	633	431	464	842	2,370	568	2,227
(천톤)	(8.0)	(17.8)	(4.3)	(7.5)	(8.7)	(-10.3)	(-6.0)
유연탄	6,166	6,592	6,543	6,530	25,831	6,306	26,175
(천톤)	(-3.1)	(1.2)	(3.2)	(2.7)	(1.0)	(2.3)	(1.3)
전력	49.7	51.9	56.5	56.0	214.1	54.5	231.3
(TWh)	(6.2)	(10.1)	(13.0)	(13.2)	(10.7)	(9.6)	(8.0)
도시가스	3,832	1,998	1,190	3,013	10,033	4,507	11,585
(백만 m ³)	(21.1)	(28.5)	(22.7)	(29.0)	(25.0)	(17.6)	(15.5)
열 및 기타	830	555	451	867	2,702	949	3,049
(천TOE)	(12.2)	(12.1)	(9.8)	(16.9)	(13.2)	(14.3)	(12.8)

주)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e는 전망치

- 원별로는, 1/4분기에 석유제품 최종소비가 4.2%, 유연탄은 2.3%, 전력은 9.6% 그리고 도시가스는 17.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석유제품 소비 증가가 둔화된 것은 역시 전년 하반기의 유가인상에 기인함
- 모든 에너지원의 2000년의 최종소비는 IMF체제 이전인 1997년 수준을 모두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수요증가를 면에서는 도시가스, 석유, 전력 모두 IMF체제 이전의 추세로 회귀할 것으로 보임
- 2000년 1/4분기에는 전 부문에서 5~10%의 안정적인 소비 증가가 기대되며 특히 수송부문 소비 증가가 주도적일 것으로 예상됨. 외환위기 이전 수준 회복이 가장 느린 석유제품 소비 또한 2000년에는 97년 동기 수준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III-2] 최종 에너지 소비증가율 전망



3. 석유제품 수요 전망

□ 2000년도 석유제품 소비는 8.0% 증가하여 778백만 배럴에 이를 것으로 전망. 1999년에 빠르게 회복되던 소비가 4/4분기에 상대적으로 둔화됨. 2000년 1/4분기 6.1% 증가 후 다시 소비 증가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표 III-5> 부문별 석유제품 수요 전망

(단위: 천bbl)

	1999					2000	
	1/4	2/4	3/4	4/4p	연간p	1/4e	연간e
수송	46,804 (4.9)	49,268 (2.8)	54,674 (10.6)	53,103 (8.9)	203,849 (6.9)	50,756 (8.4)	223,922 (9.9)
산업	90,313 (5.9)	82,288 (0.1)	89,329 (6.2)	95,741 (4.3)	357,671 (4.2)	93,839 (3.9)	376,881 (5.4)
- 연료	31,933 (9.7)	27,481 (3.9)	28,259 (8.5)	32,322 (6.5)	117,913 (5.3)	32,076 (2.1)	122,828 (4.2)
- 원료	58,380 (4.0)	54,807 (-1.6)	61,070 (5.1)	63,419 (3.2)	237,676 (2.7)	61,762 (5.8)	254,053 (6.9)
가정·상업·공공	50,456 (47.2)	20,871 (9.0)	20,697 (20.3)	38,065 (1.2)	130,088 (20.2)	50,810 (0.7)	132,427 (1.8)
발전	6,167	8,055	4,790	5,502	24,514	10,060	42,418
지역난방	(-31.7)	(41.0)	(27.9)	(14.8)	(5.3)	(63.2)	(75.6)
도시가스	1,402 (-12.5)	873 (12.2)	766 (30.3)	1,140 (-5.3)	4,181 (0.2)	1,489 (6.2)	3,802 (-9.1)
석유계	195,147 (11.5)	161,354 (3.6)	170,256 (9.7)	193,551 (5.0)	720,307 (7.5)	206,955 (6.1)	778,278 (8.0)

주)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e는 전망치

- 이러한 2000년 연간 난방 778백만 배럴은 97년도 수준의 98%에 해당. 1999년 수요는 96년 수준과 유사하였으며, 97년도 수준의 92%에 그쳤음
- 외환위기 이전 수준의 회복은 부문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 2000년도에도 석유수요가 97년 수준을 완전하게 회복하지 못하는 것은 외환위기 중 전화부문의 대폭 감소와 최근 가정상업 부문의 정체가 주요인임
- 한편, 1999년 석유수요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 못 미치는 수준임에 반해, 2000년 전망에서는 경제성장률을 초과하여 외환위기 이전 소비패턴으로 완전히 회귀할 것으로 판단됨

□ 2000년 석유수요 증가는 수송부문이 주도하는 가운데, 산업부문 또한 안정적 수요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수송부문 경유와 LPG의 급격한 수요 증가는 다소 둔화되더라도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최근 고유가로 정체된 휘발유 수요도 다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외환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수송부문 수요는 2000년 하반기에 1997년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보임
- 산업부문 수요는 산업활동 호조로 연료와 원료 모두 안정적인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판단됨. 1999년에 크게 증가했던 중유 소비증가가 안정되는 반면, 최근에 소비가 늘기 시작한 등유와 경유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나프타 소비 또한 1999년의 상대적 정체에 대비해서는 안정적 증가가 기대됨
- 가정상업부문 수요는 최근의 고유가, 비교적 온난한 기온, 타에너지원으로서의 대체 등의 요인으로 크게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전환부문 중 발전용 석유수요는 외환위기로 인한 큰 감소폭을 다소 회복하면서 늘어날 전망이고, 도시가스제조는 천연가스의 대체로 정체를 보일 전망이다

□ 주요 유종별 전망에서는 계속해서 경유(수송용)와 중유 소비가 증가세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소비 증가가 예상됨

- 휘발유 소비는 높은 제품가격으로 1999년 4/4분기에 영향을 받았지만, 경제 회복과 함께 증가 회복세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음. 향후에 증가속도가 다시 빨라질 가능성이 있음
- 중유는 발전부문을 포함한 전 부문에서 최근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음. 2000년에는 발전부문 증가폭이 더욱 늘어나고, 수송, 가정상업용 소비

도 늘어나는 한편, 산업부문 소비는 증가폭이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 경유는 수송 부문에서 1999년 1/4분기에 감소를 기록했던 것에 비교할 때, 2000년 1/4분기에 지표상 큰 증가를 기록할 전망이다. 산업경기 호조와 함께 물동량 증가로 증가하고 있음
- 한편, 가정상업 및 공공기타 부문과 산업 부문에서 경유와 등유의 소비는 최근 정체되고 있어, 2000년 1/4분기에는 크게 증가하지 않다가 연간으로는 증가폭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임
- LPG 소비는 수송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타부문에서는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연간으로는 1999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표 Ⅲ-6〉 주요 제품의 수요 전망(1차에너지 기준)

(단위: 천bbl)

	1999					2000	
	1/4	2/4	3/4	4/4p	연간p	1/4e	연간e
휘발유	15,763 (15.3)	15,214 (-3.7)	17,932 (11.6)	15,076 (-3.1)	63,985 (4.7)	15,820 (0.4)	68,419 (6.9)
수송경유	16,775 (-3.1)	19,296 (10.0)	20,496 (13.2)	21,032 (12.9)	77,599 (8.4)	18,987 (13.2)	86,378 (11.3)
등유+경유 (발전용 포함)	47,940 (45.3)	20,350 (-2.8)	20,562 (8.7)	36,872 (-0.3)	125,724 (14.5)	48,320 (0.8)	133,759 (6.4)
중유 (발전용 포함)	32,156 (1.5)	30,306 (15.1)	27,080 (12.3)	30,634 (7.3)	120,176 (8.6)	36,401 (13.2)	140,406 (16.8)
나프타	55,652 (4.9)	50,190 (-1.6)	56,389 (2.6)	57,632 (2.7)	219,863 (2.8)	58,565 (5.2)	235,224 (7.0)
L P G (가스제조포함)	19,881 (12.2)	16,975 (16.0)	18,254 (22.4)	21,595 (21.4)	76,705 (17.9)	23,776 (19.6)	76,905 (0.3)

주) 등유+경유 : 경유(수송용 제외), 실내등유, 보일러 등유의 소비량 합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 e는 전망치